

# 박사학위논문

## 화자의 발화속도, 발음, 소음이 통역 청취에 미치는 영향

- 스페인어-한국어 순차통역을 중심으로 -

이은성(Eunsung Lee)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연구 배경 및 목적

Seleskovitch와 Lederer(1989/1995: 2)의 주장처럼 청취는 통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통역학에서 청취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순차통역 청취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순차통역 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둘째로 스페인어-한국어 순차통역 상황에서 연사의 발화 속도와 발음, 소음이 실제 통역사의 청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왔다.

### 2. 연구 방법

#### 2.1. 순차통역 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인 청취는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순차통역 청취에서는 여기에 노트 테이킹이 수반된다. 따라서 순차통역 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과 노트 테이킹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 요인’으로 구분했다.

먼저 언어학 선행연구를 검토해 아래와 같은 9가지의 일반 요인을 도출했으며, 이후 통역학 연구를 검토해 노트 테이킹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의 특수 요인을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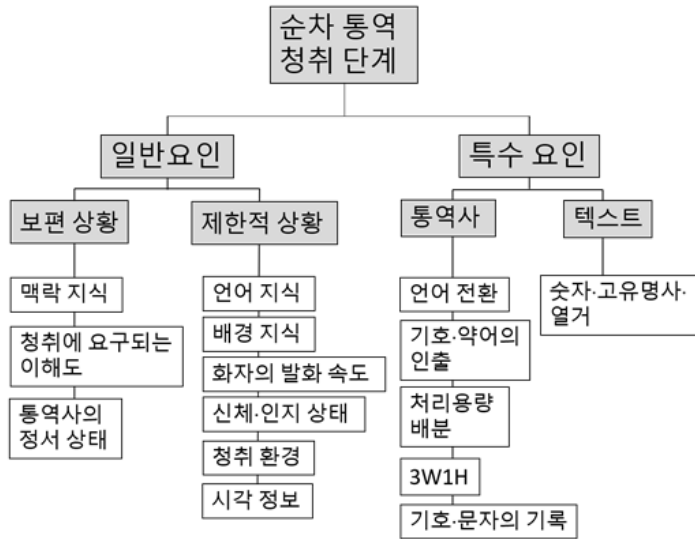


그림 1. 순차통역 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요인은 보편적인 순차통역 상황에서 통역사의 청취를 저해하는 요인들과 제한적인 순차통역 상황에서 청취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구분된다. 그리고 특수 요인은 통역사와 관련된 요인들과 연사가 발화하는 텍스트와 관련된 요인들로 구분된다.

이렇게 도출한 요인을 모두 실험해 실제 청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 중 화자의 발화속도와 발음, 그리고 소음이 순차통역 청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측정해왔다.

## 2.2. 실험

### 2.2.1. 발화 속도 실험

실험참가자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2학년 재학생 8명으로 구성했다. 실험텍스트는 총 8개로 주제별로 4개씩 나누고, 동일 주제간 텍스트의 어휘 및 통사 난이도를 가능한 유사하게 조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4개의 발화속도(90, 110, 130, 150wpm)로 피험자들에게 들려주고 결과를 관찰했다.

### 2.2.2. 발음 실험

화자의 발음이 청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 발음이 필요하며 기준 발음은 피험자 모두에게 익숙한 발음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준 발음을 한국식 스페인어 발음으로 설정하고, 음소차원에서 한국식 발음과 차이를 보이는 원어민 발음과 청취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9개의 텍스트를 한국인이 낭독한 녹음 파일과, 스페인어권 7개국 원어민이 낭독한 녹음 파일로 나눠 준비했다. 그리고 8명의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쪽에는 한국인이 낭독한 파일로 텍스트를 들려주고, 다른 쪽에는 원어민이 낭독한 파일로 텍스트를 들려줬다.

### 2.2.3. 소음 실험

통역 상황에서는 발생하는 대표적 소음 중 하나는 다화자 소음이다. 이런 이유로 소음 실험에서는 한국어 다화자 소음, 스페인어 다화자 소음, 그리고 비언어적 소음인 백색 소음을 사용했다. 이렇게 총 세 종류의 소음을 세 가지 신호대잡음비(0dB과 +5dB, +10dB)로 텍스트 낭독 파일과 섞었다.

그리고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소음이 있는 파일을 들려주고, 다른 쪽에는 소음이 없는 파일을 들려준 뒤 청취도를 비교해봤다.

## 3. 분석 결과

### 3.1. 발화속도 실험 결과

실험 결과 발화속도가 90wpm일 때와 110wpm일 때는 청취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0wpm일 때는 110wpm 대비 청취도가 약 10% 하락했고, 150wpm일 때도 130wpm 대비 청취도가 약 1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페인어-한국어 순차통역에서 이상적인 연사의 발화속도는 90-110wpm이며, 110wpm을 기점으로 20wpm씩 발화속도가 상승할 때마다 청취도가 약 10%씩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발음 실험

실험 결과 발음이 청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첫째로 실험에 사용되었던 텍스트가 국제회의 연설문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험자들은 통역교육 과정에서 많은 양의 국제회의 연설문을 접했기 때문에, 음성 신호를 원활히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배경지식을 활용한 하향식 처리를 통해 실험 텍스트를 원활히 청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생소한 발음이 구현된 단어 수가 전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셋째로 생소한 발음이 주로 난이도가 낮은 단어에서 구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험 텍스트의 어휘 분석 결과 생소한 발음은 고빈도 단어에서 주로 구현되었다. 익숙한 단어는 음성신호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하향식 처리를 통해 원활히 청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생소한 발음이 피험자들의 청취에 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3.3. 소음 실험

실험 결과, 백색 소음은 모든 SNR 조건에서 통역사의 청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와 스페인어 다화자 소음은 SNR이 0dB일 때만 청취도를 각각 21.51%와 27% 저하시키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언어적 소음이 비언어적 소음 보다 청취를 더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역 청취에는 복잡한 의미처리가 수반되어, 언어적 의미가 담긴 소음이 청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 4. 결론

실험에서 발화속도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통역사의 청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실험에 사용된 텍스트가 국제회의 연설문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다른 텍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실험 결과가 달라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순차통역 청취와 스페인어 청취 연구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실험에서 피험자 수가 8명으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 참고문헌

Seleskovitch, Danica, & Lederer, M. (1995). A systematic approach to teaching interpretation (J. Harmer, 번역자).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본 초록은 ‘이은성. (2022). 화자의 발화속도, 발음, 소음이 통역 청취에 미치는 영향: 스페인어-한국어 순차통역을 중심으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 *Author's email address*

perm1@naver.com

### *About the author*

Eunsung Lee is a lecturer at GSI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ducation.